<인영>

철학과 201821688 김요셉

‘쨍그랑’ 소리에 몸을 웅크려보지만 방문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양 손으로 귀를 막아보지만 엄마아빠가 싸우는 소리는 계속해서 인영이의 귓가를 쑤시고 들어왔다. 엄마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막기 위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두 눈을 꼭 감아봤지만 도리어 아빠의 일그러진 얼굴과 엄마의 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서럽게 울며 인영이에게 아빠를 욕하던 엄마의 모습이, 엄마는 인영이 밖에 없다던 모습이 그려졌다. 인영은 여지껏 눈물을 막아주던 눈꺼풀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곰돌아 너무 무서워…”

인영이는 거실과의 단절을 포기한채 안고 있던 곰인형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인영이가 자신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나가려는 아빠에게 말했다. 비가 양철지붕을 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창문 너머에서 빛이 번쩍였다. 창문에 쳐진 커튼에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였다. 단지 커튼에 비친 그림자였을 뿐이지만 인영이는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빠의 품에 달려들었다. 아빠는 그런 인영을 내려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번쩍 안아들어 침대에 뉘었다.그리고는 베개 옆에 놓여있던 곰인형을 들어 인영의 품에 안겨주었다. 곰인형은 인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동그란 핑크색 얼굴과 머리에 달린 커다란 빨간 리본이 특징이었다.

“곰돌이가 인영이를 지켜줄거야.”

‘쿠르르르릉’

아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천둥이 쳤다. 인형의 큰 눈동자를 바라보던 인영은 방 안을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다시금 아빠의 품에 달려가 안겼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요.”

"전에 분명 인영이는 이제 다 커서 혼자 잘 수 있다고 했는걸?”

울먹이는 눈망울로 아빠에게 졸라보던 인영이었지만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아빠를 보며 무서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이런 표정을 짓던 아빠에게 울며 졸랐다가 혼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자신을 바라보는 인영을 잠시 꼭 안아주더니 번쩍 들어 침대에 뉘었다. 곰인형을 인영의 품에 안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곰돌이가 인영이를 지켜줄거야.”

아빠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캄캄해진 방이지만 인영은 아빠가 떠난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문에 시커먼 늑대들이 드리워졌다. 삐죽삐죽 날카로운 몸에 이글거리는 안광을 한 괴물들이 거칠게 몸을 흔들며 인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인영이는 곰돌이를 세게 끌어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쿠르르릉 울부짖었다.

인영이는 벌레를 무서워 한다. 그 중에서도 거미를 가장 무서워 한다. 긴 다리를 교대로 움직이며 기어가는 거미. 방 한 구석에서 거미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미를 볼 때면 소름이 돋느다. 엄마와 함께 산책하다 얼굴에 거미줄이 붙었을 때는 너무 놀라 길거리에서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다. 방에서 혼자 놀다 거미가 나올 때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집어던지고 엄마에게 뛰어가고는 했다. 그럴 때면 엄마가 인영이를 다독이고 거미를 잡아주었다. 하지만 요새는 거미가 나타나 소리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가도 엄마는 귀찮아 한다.

“다 큰 애가 뭘 거미 가지고 그러니?”

“그치만…”

인영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인영의 엄마 아빠도 의젓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볼때마다 분명 다 컸다고 해주셨다. 하지만 아직도 거미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이다. 인영이는 자신이 어른이 되어갈수록 엄마가 겁에 질린 자신을 보듬어주는 일이 적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 요새는 엄마가 자신에게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인영이는 엄마가 그럴 때마다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주어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랬지!”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인영은 깜짝 놀라 동그란 눈으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숟가락이 내던져지는 소리에 인영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인영이 너는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인영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 인영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하지만 오늘 항상 단정하던 엄마의 긴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인영을 향해 웃어주던 입술은 앙다문 채였다.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인영을 방에 데려다 준 엄마는 방문을 닫고 나갔다. 손에 이끌려오면서 본 엄마의 우는 모습에 인영은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는 인영에게 곰돌이를 안겨주고 나갔다. 인영이가 한참을 울었지만 엄마아빠의 싸우는 소리는 방문 너머로 계속 들려왔다. 인영은 곰돌이를 안은 채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엄마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곰돌이를 세게 껴안았다.

“인영아! 인영아 일어나!”

아득히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이어서 자신을 흔드는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인영은 정신을 차렸다. 무거운 눈을 비비며 자신을 깨운 존재를 찾았지만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일어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인영의 곰돌이 뿐이었다. 다만 곰돌이가 좀 컸다. 아니 곰돌이 뿐만 아니라 베개도, 덮고 있던 이불도 인영 자신에 비해 한참이나 컸다. 당황한 인영이 고개를 돌려보니 방 안의 다른 사물들 모두 잠들기 전보다 부쩍 커진 것 같았다.

“인영아! 일어났구나!”

분명 곰돌이었다. 머리에 새빨간 리본을 하고 있는 곰돌이. 한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파랗고 커다란 뿅망치를 들고 있는 곰돌이. 인영을 항상 지켜준다던 그 곰돌이 말이다. 그런 곰돌이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인영이는 크게 당황하였다. 인형일 뿐인 곰돌이가 두 발로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곰..곰돌아! 곰돌이 너 어떻게 된거야? 말을 해! 곰돌이가 말을 해! 그리고 좀… 커진 것 같다 곰돌아.”

“내가 커진게 아니야 인영아. 네가 작아진거야.”

“내가 작아졌다고?”

“그래 인영아. 네가 인형이 됐어. 인형이 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거야.”

다급하게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몸을 바라본 인영이는 손가락도 없이 뭉툭해져버린 손을 갖고, 울며 잠들기 전 자신이 입고있던 잠옷이 그려진 원피스를 입고 있는 밋밋한 봉제인형의 몸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엄마! 아빠!”

인영이는 소리지르며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덩치보다 훌쩍 커진 이불을 치우기란 쉽지 않았다. 곰돌이는 이불을 빠져나오기 위해 낑낑대는 인영이의 양 팔을 잡아 쑥하고 빼내주었다. 인영은 그런 곰돌이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커다란 침대 위를 뒤뚱거리며 뛰어갔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침대의 끝에 다다른 인영은 저 멀리 보이는 방문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곰돌이보다 작아진 인영이에게 침대를 내려가기란 벅차보였다.

“엄마…”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친 봉제인형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하얗기만 했다.

“날이 밝고 엄마가 깨우러 오시면 그때 말씀드려보자. 침대를 내려가더라도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 무리인 것 같아.”

공황상태에 빠졌던 인영이는 곰돌이의 침착한 다독임 끝에 눈물을 그쳤다. 풀이 죽은 인영이는 곰돌이와 함께 달빛을 조명 삼아 베개 위에 걸터앉았다.

‘꼬르륵’

그때 인영의 배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인 인영이는 인형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두 뺨이 빨갛게 변한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인영아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 내가 금방 먹을 것을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곰돌이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민망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인영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주었다. 인영이는 베개에서 폴짝 뛰어내린 곰돌이를 불안한듯 바라보았다.

“같이 가면 안돼?”

“먹을 것을 가져오려면 침대 밑에 다녀와야해. 나보다도 작아진 인영이에게는 힘들 수 있어. 쉬고 있으면 금방 다녀올게 인영아.”

“그치만… 빨리 다녀와야해?”

“응!”

곰돌이는 활짝 웃는 얼굴은 한 채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 인영이는 곰돌이가 사라진 침대 위가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쿠르르릉’

“꺄악!”

침대에 홀로 남은 인영이는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곰돌이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하기만 하였다. 인영이는 베개 밑에 기어들아가 숨 죽이며 곰돌이를 기다리기로 했다.

‘부스럭’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인영이의 귀에 이불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영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이불 더비를 바라보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침을 꼴깍 삼키고 숨을 죽이고 있으니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단 핑크색 곰인형이 이불을 헤치며 나왔다.

“곰돌아!”

아장아장 걸어온 곰인형은 양손 가득 본인의 리본색처럼 빨간 체리열매를 인영에게 건냈다.

“많이 배고프지 인영아! 이거 먹어!”

인영은 눈물 가득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체리를 받았다.

“고마워 곰돌아. 같이 먹자!”

인영과 곰돌이 체리를 나누어 먹고 있는 와중에도 창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울렸다.

‘쿠르르릉’

“꺄아악!”

방 안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들리자 인영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웅크린채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그때 보들보들한 털뭉치가 자신의 등을 감싸안는 것을 느낀 인영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곰돌이가 인영이를 꼭 껴안아주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마 인영아”

곰돌이의 품 안에서 얼굴을 비비던 인영이는 곰돌이의 어깨 너머로 노란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침대 끝에서 보이던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하나 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쿠르르릉’하는 천둥 소리도 점점 더 자주, 그리고 크게 들여왔다.

“고 곰돌아…

인영이는 곰돌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지다. 하지만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꼭 감싸주는 곰돌이의 얼굴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다. 곰돌이는 무릎을 굽히고 인영의 눈을 마주 바라보며 말했다.

“곰돌이가 인영이를 지켜줄거야.”

번개가 번쩍하고 방 안에 빛이 가득 찬 순간. ‘콰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형체가 인영과 곰돌이를 덮쳐왔다. 곰돌이의 어깨 너머에서 아가리를 벌린 채 덥쳐오는 늑대의 모습을 본 인영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뾱! 뾱! 뾰뵥!”

팽팽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바람 빠지는 소리에 인영이는 용기를 내어 실눈을 떠보았다.

곰돌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재빠른 몸놀림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불 위에서나 공중에서나 거침 없이 뿅망치를 휘두르는 곰돌이. 곰돌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벌 같았다. 방의 어둠보다 새카만 몸.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날카로운 털. 이글거리는 노란 눈을 한 괴물들이 곰돌이를 잡아보려 달려들었지만, 곰돌이는 하늘을 나는 듯한 날랜 몸놀림으로 요리조리 피했다. 스쳐지나가는 괴물들 뒤통수에 뿅망치를 후려치는 모습에 인영은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때 뿅망치를 맞고 비틀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괴물 한 마리가 인영과 두 눈을 마주쳤다.

‘쿠르르릉’

천둥소리를 내던 괴물은 몸을 잔뜩 웅크리더니 인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꺄악!”

깜짝 놀란 인영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머리를 양손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뾱!”

잔뜩 웅크린 상태로 긴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자 인영은 다시 눈을 떴다. 잔디밭에는 괴물들이 혀를 쭉 뺀 채 누워있었다. 곰돌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인영은 자신을 덮치던 괴물을 쓰러뜨리고 의기양양하게 서있는 핑크색 털뭉치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인영이는 그런 곰돌이를 향해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곰돌이가 정말로 지켜줬구나!”

곰돌이와 그림자 늑대를 퇴치한 것을 함께 기뻐하던 것도 잠시. 여기저기 실밥이 뜯겨나간 곰돌이의 모습이 인영의 눈에 들어왔다.

“곰돌아…”

“문제 없어 인영아! 인영이는 곰돌이가 지켜줘!”

곰돌이는 원피스 밑단이 터져 삐져나온 솜을 집어넣으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빨간 리본과 함께 곰돌이의 트레이드 마크이던 파란 뿅망치도 마지막 늑대를 처치하며 뜯기고 말았다. 상처 투성이인 곰돌이는 인영이가 걱정할세라 과장된 표정과 몸동작으로 인영이를 안심시켰다.

무기도 없는 상태에 그림자 늑대들이 다시 덮칠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곰돌이와 인영은 날이 밝아오자 어서 엄마가 찾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오도록 엄마가 인영의 방에 찾아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인영이는 곰돌이를 조르기 시작했다.

“곰돌아 곰돌아 우리가 엄마를 부르자 곰돌아.”

“곰돌아 곰돌아 방문을 열 수는 없어도 방문을 두드리면 엄마가 문을 열어보지 않을까?”

곰돌이는 안전하게 침대에서 엄마를 기다려보자고 설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인영의 방을 찾아오지 않았다. 곰돌이는 결국 인영이를 이기지 못하고 침대를 내려가 방 문에 장난감들을 던져 엄마를 불러보기로 하였다.

이불을 헤치고 침대 밑으로 내려온 곰돌이와 인영은. 드넓은 카페트를 지나 방 문 앞에 도착하였다. 오는 길에 장난감 상자에서 육면체 상자와 같이 작고 딱딱한 물건들을 따로 챙겨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아진 인영의 눈에 비친 방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대한 성문처럼 보였다.

“하나 둘 셋하면 같이 문에다 세게 던지는거야. 인영아 알았지? 하나. 둘. 셋!”

‘쾅!’

두 작은 인형들이 던진 장난감이었지만 동시에 문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내었다. 둘은 잠시 숨을 죽이며 엄마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위이잉’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시 한 번 던져보자. 하나. 둘. 셋!”

장난감들이 또 다시 방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를 내었다. 간절히 바라던 엄마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위이잉’하는 소리만 아까보다 크게 들릴 뿐이었다.

“엄마! 엄마!”

인영이는 방 문 너머 엄마에게 목소리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에 가까이 다가가며 소리 질렀다. 인영이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을까. 방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

하지만 문 틈으로 인영이를 맞이한 것은 인영이가 그토록 바라던 엄마였다. 아니 청소기를 들고 들어오는 인영이의 엄마였다.

“위이이잉”

눈 앞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굉음을 내며 곰돌이와 인영을 향했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단지 청소기일 뿐이던 것이 지금은 인영과 곰돌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온 몸이 떨릴 정도의 소음을 만들어내는 괴물이 눈 앞에 닥치자 인영의 두 다리도 덜덜 떨리며 힘이 풀리고 말았다 곰돌이도 청소기의 덩치와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경직된 나머지 움직일 수 없었다. 뿅망치가 그림자 늑대의 날카로운 털에 망가져버린 지금, 곰돌이가 청소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없었다. 아니 뿅망치가 온전하더라도 이토록 거대한 기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따름이었다. 코 앞에서 마주한 청소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는 수 밖에는 없었다. 일초, 이초, 삼초.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커녕 청소기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가자 곰돌이와 인영은 눈을 살짝 떠보았다. 뒤로 물러가는 괴물. 엄마가 청소기를 앞뒤로 움직이며 청소하느라 청소기의 흡입구가 인영과 곰돌이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엄마의 앞까지 물러갔던 청소기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금 인영과 곰돌이를 향해 덮쳐왔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곰돌이와 인영이는 청소기의 진행 방향을 피해 도망치며 엄마를 향해 소리질렀다.

“엄마! 저 인영이예요! 엄마! 청소기 좀 꺼주세요!”

청소기를 멈추라 애타게 외쳐봤지만 엄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싶었다. 아니, 애초에 엄마는 곰돌이와 인영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청소기를 움직여댔다. 그때 곰돌이의 눈에 점점 작아지는 인영이의 모습이 보였다. 카페트 위에서 청소기를 피해 뛰어다니던 인영이는 카페트 털오라기 속에 파묻힐 정도로 작아져버리고 말았다.

"곰돌아, 도와줘 곰돌아."

카페트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인영의 두 눈에는 눈물을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곰돌이는 그림자 늑대들과 싸우느라 많이 지쳤지만 인영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곰돌이는 힘을 내 청소기를 피해 달렸다.

인영이를 안고 가느라 발걸음이 느려진 곰돌이를 향해 청소기가 빠른 속도로 덮쳐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도망쳐봤지만 청소기는 온 방안을 훑으며 따라왔다. 침대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 곰돌이와 인영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없어보였다. 하지만 인영이를 품에 안은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를 오르기란 무리였다. 청소기를 피해 여태까지 잘 도망치던 곰돌이였지만 결국 벽에 몰리고 말았다. 굉음에 곰돌이 몸에 난 털들이 휘날릴 정도로 청소기가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앞까지 다가온 청소기에 곰돌이는 자신의 리본이 빨려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곰돌이는 자신의 품에 안겨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인영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약속. 인영이와 한 그 약속을 되뇌이며 곰돌이는 자신의 몸의 크기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벽 모서리에 난 틈을 향해 몸을 날렸다.

곰돌이와 인영이가 발목까지 두껍게 쌓인 먼지를 헤치며 걷고 있었다. 인영과 곰돌 둘이 겨우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의 바닥에는 두껍게 쌓인 먼지들 사이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파묻혀 있었다. 인영이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지만 제대로 마감되지 않아 벽 안에 그물처럼 뻗어있는 전기배선들과 벽 내장재들만 가득할 뿐이었다.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벽 중간중간 나있는 틈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 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먼지가 얼굴까지 올라오며 둘의 시야를 방해했다.

"푸에취!"

코를 간지럽히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에 인영이 재채기를 했다.

"여기가 어디야 곰돌아?"

"청소기를 피해 벽 속으로 도망쳤어. 벽을 통해 반대편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인영아. 엄마아빠의 침대에 편지를 써서 두고 두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두 분이 읽고 우리를 알아채실게 분명해."

"으응 알겠어 곰돌아."

앞장서서 걸어가는 곰돌이의 뒷모습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던 인영이는 문득 곰돌이의 걷는 모양새가 이상함을 느꼈다.

"곰돌아 괜찮아? 다리를 저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도망치다 다리를 삐었나봐. 금방 나을거야. 걱정없어! 인영이는 곰돌이가 지켜줄거야. 나만 믿으라구!"

곰돌이는 그림자 늑대와 싸우다 터진 다리의 실밥이 더 크게 터져있었다. 곰돌이가 다친 다리로 걸을 때마다 벌어진 구멍 사이로 상당한 양의 솜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 인영이가 걱정되는 눈빛으로 곰돌이를 쳐다보지만 곰돌이는 계속해서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인영이를 안심시켰다. 인영이는 크기가 작아진 곰돌이의 모습도 걱정되었다. 혹시 작아진 자신의 크기에 맞추어 곰돌이도 작아진 것 같아 크게 신경쓰였다.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도 곰돌이는 여전히 작은 상태일까 염려되었다. 하지만 곰돌이는 걱정말라며 인영이를 향해 미소지을 뿐이었다.

벽 속에는 어둠과 먼지만이 둘을 괴롭힐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달려드는 그림자 늑대도, 굉음을 내며 모든 것을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청소기도 없었다. 먼지를 헤치고 내장재들을 기어오르며 한참을 나아가는 동안 똑. 똑.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전부였다. 다만 쌓여있는 먼지들이 문제였다. 언제부터 쌓여있던 것인지 모르겠는 먼지들은 걸어갈 때마다 흩날려 폐부까지 건조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워낙 두껍게 쌓였기 때문에 바닥에 금이 간 부분이나 구멍들을 가려 의도치 않은 함정을 만든 것이다. 때문에 조심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동속도는 지체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곰돌이와 인영은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뒷편으로 소름끼치는 발소리가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족보행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 수 많은 발들이 빠르게 내는 소리. 목 뒷덜미를 오싹하게 만들고 입안을 순식간에 바짝 마르게 만드는 소리. 바로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끼야악!"

인영이는 곰돌이의 뒤에 숨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조심스레 실눈을 뜨고 보자 멀리 나무조각 뒤에 거미가 보였다. 커다란 눈알과 길쭉한 더듬이. 잔털이 잔뜩 나있는 긴 다리와 날카로운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까지. 소름끼치는 그 생김새에 인영이는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쉬이잇!’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거미의 입에서 거미줄이 뿜어져 나왔다. 거미줄은 곰돌이의 다친 다리에 붙어 곰돌이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거미는 옴짝달싹 못하게 된 곰돌이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앞다리를 휘둘렀다.

“위험해!”

곰돌이는 자신이 위험한 가운데에도 두 눈을 꼭 감은 채 자신의 등 뒤에서 떨고 있던 인영을 감싸며 몸을 날렸다. 부욱하는 소리와 함께 곰돌이와 인영은 먼지를 뒹굴었다.

“콜록콜록”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인영이는 기침을 하다 한쪽 다리가 뜯긴 곰돌이를 보고 말았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곰돌아! 어떻게 해 곰돌아…”

거미줄로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실밥이 터진 다리는 곰돌이가 몸을 날리면서 뜯겨나가고 말았다.

‘곰돌이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젠 내가 곰돌이를 지켜줄 차례야’

인영이는 겁이 나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내딛어 곰돌이 앞에 섰다. 더듬이를 까딱거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흉측한 모습에 당장에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인영이는 곰돌이를 위해 이겨냈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소름끼치도록 무서웠지만 거미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인영은 거미가 자신의 코 앞까지 다가오자 바닥의 먼지를 거미를 향해 세게 차올렸다.

“도망쳐 곰돌아!”

인영이는 먼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미를 뒤로한 채 곰돌이의 손을 잡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거미와 장애물을 피해 한참을 도망친 인영이와 곰돌이는 벽 틈으로 난 큰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목적하던 거실로 나온 인영이와 곰돌이는 마침내 엄마와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를 만난 것에 기쁨도 잠시.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던 인영이는 큰 소리로 다투고 있는 두 분의 모습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벽을 나온 인영이 마주한 것은 인영이의 실종과 관련해 서로를 비난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다.

인영의 호흡이 점차 가빠졌다. 인영은 두 분이 멀어져만 갔다. 인영을 둘러싼 풍경이 빙빙 돌았다. 인영은 현기증이 났다. 인영은 구역질이 났다. 인영은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찼다.

인영은 캄캄한 어둠 한복판에 한참을 홀로 서있었다. 인영의 두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인영의 눈에 거울이 들어왔다.

어둠 가득한 이곳에는 빛이 오직 거울과 인영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소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 분위기에 취한 인영은 거울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늘지고 외로워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 아빠가 생각나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인영이의 뺨에 그제서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거울 속 인영이는 어째서인지 울고있지 않았다.

“너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시는거야.”

갑자기 말을 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인영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거울을 쳐다보고 있자 다시 한 번 거울 속 인영이 말했다.

“너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시는거라고.”

“아니. 아니야!”

인영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뒷걸음질치며 말했다. 뒷걸음질치던 인영의 발뒷굼치에 무엇인가 닿았다. 인영이 고개를 돌리자 거울 속에서 초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시고 있는거라고. 너. 바로 너 때문에”

인영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거울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영이 도망치는 곳마다 또 다른 인영들이 인영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다투시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으신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너만 없어지면 두 분이 행복해지실 수 있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인영이는 인영이들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이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너만 없었더라면 엄마아빠는 싸우지 않았을텐대”

곰돌이도, 엄마도, 아빠도 없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초점 없는 눈동자의 인영이들과, 귀를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 뿐이었다. 인영이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곰돌아… 지켜준다고 했잖아… 어디 있어 곰돌아… 제발 도와줘…”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을 잃어가던 인영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거대한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인영을 가두고 있던 새카만 공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 점차 벌어지며 생긴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인영을 비추었다. 인영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향하는 밝은 빛을 젖은 두 눈동자로 바라보았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 인영이 목격한 것은 광명을 가르며 비상하는 존재였다. 한 쪽 다리를 잃은 인영의 수호천사였다.

정신을 차린 인영은 자신이 이불 속인 것을 깨달았다. 인영의 손에는 곰돌이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다. 어디를 가던지 항상 함께 하던 곰돌이 인형은 한쪽 다리가 뜯겨져 있었다. 인영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곰돌이를 꼭 껴안았다.

“곰돌이도, 나도 내가 지켜내고 말거야.”

밤새 비가 내린 창문 밖에는 바닥에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